



金 徽 碩 / 産業研究院 責任研究員

電子産業의 底力

1988년은 예년과는 달리 급속한 원貨 切上, 비교적 큰폭의 賃金引上, 가속적인 先進國의 通商壓力 등 전자産業을 둘러싼 環境要因이 극도로 악화된 한 해였다. 이처럼 불리한 環境要因의 대두로 국내전자産業은 크게 萎縮되고 그 결과 輸出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는 憂慮도 높았다. 그러나 금년을 마무리하는 이 時点에서 보면 예상과는 달리 輸出은 好調를 보여 150億 달러까지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業界의 倒産과 같은 極限의인 狀況도 없었다.

금년초 國內電子産業에 있어서 불리한 與件으로 크게 지목되었던 美國 GSP 受惠國으로부터의 卒業도 사실상 杞憂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중인 VTR, C-TV, CDP, 비디오 테이프, MWO 등 國內生産 家電製品에 대한 EC 地域의 反덤핑 提訴 壓力은 業界의 自律規制를 통하여 해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15% 정도의 輸出價格引上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그만큼의 對EC 地域 輸出減少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적인 메모리 칩의 品貴現狀으로 PC 등 電子業界의 生産戰略에 막대한 差跌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금년중 美國의 PC 및 OA産業의 好況과 더불어 메모리의 需要가 256K DRAM에서 1M DRAM으로 이행되는 過程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現象이기는 하나 根本的으로는 美日半導

體의 否定的인 影響 중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금년중 전자産業의 需要構造에서 일고 있는 중요한 變化 중의 하나는 輸出主導勢가 완화되고 대신 內需部門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要因으로는 우선 급속한 원貨 切上에 대한 反作用으로 業界의 販賣戰略이 일부 內需中心으로 이행된 점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內需擴大는 물론이고 輸出도 정상적으로 신장되는 兩面效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特消稅引下措置(88.3)와 輸入自由化의 전면적인 實施(88.4)도 內需擴大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政策要因에 더하여 금년에는 올림픽 開催에 따른 關聯需要 특히 家電部門에서 VTR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외에도 電算網構築에 따른 通信端末機의 수요, 그리고 普及型 PC의 出荷 등도 內需振作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輸出依存的인 國內電子産業의 需要 패턴이 內需主導型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큰 變化라고 할 수 있다.

금년중 電子部門에서 두드러진 現象 중의 하나는 海外投資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海外投資는 貿易摩擦을 회피하기 위한 手段으로 추진되었으나 이제는 經營合理化의 일환으로 추진됨으로써 그 범위와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海外直接投資의 活性化와 더불어 家電製品의 對共產圈 輸出도 크게 늘었는데 아직까지는 香港을 경유하여 中공, 소련 및 東歐圈 일부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이처럼 國內電子産業은 劣惡한 環境要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産業規模가 확대되는 등 그 伸張勢가 지속됨으로써 우리의 底力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금년도의 輸出이 증가한 것은 원貨 價値의 급격한 上昇으로 인한 短期的인 J커브效果라고도 볼 수 있어 원貨 切上에 대한 否定的인 效果는 1년내지 1년6개월후에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이후의 電子産業은 그다지 樂觀的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또한 국내 전자産業은 産業成長과 더불어 병목현상으로 작용할 可能性이 매우 큰 技術人力의 不足現象이 可視化될 展望으로 있어 이에 대한 對策도 시급한 懸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政府独占으로 운영되어 電子製品 需要構造의 硬化를 초래해 온 情報通信部門의 自由競爭體制 構築도 중요한 課題가 되고 있는 것이다.

1988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금년도의 國內電子産業은 어려운 與件에서도 힘찬 跳躍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하며, 내년에도 이같은 成長이 지속되어 보다 성숙된 電子産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